

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'당근 파종기 물부족 심각' 긴급 급수지원

이창준 기자 | 승인 2024.08.12 11:00



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구좌읍 김녕과 월정, 행원, 한동지역에 긴급 물지원을 하고있다.(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제공)

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(본부장 김동철, 이하 제주본부)는 도내 파종기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, 월정, 행원, 한동지역에 지난 6일부터 매일 긴급 급수지원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.

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일평균강수량이 5.6mm로 평년의 69% 수준에 그친데다 폭염일수가 18일로 관측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물부족 현상에 고열피해까지 더해져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실정이다.

특히 국내 전체 당근 생산량의 60%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구좌지역은 7~8월 당근 파종기를 맞았으나 당근 모종이 고열과 물부족으로 싹을 틔우지 못 하고 있다.

이에 제주본부는 보유 중인 급수차량을 배치해 긴급지원에 나섰고 관내 공사관리 저수지 농업용수를 적극 활용해 급수지원을 실시하고 있다.

김동철 본부장은 "행정기관과 협력해 물 부족 단계별로 저수지, 급수차, 급수탑, 양수장비 등 모든 보유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계획"이라며 "폭염이 지속되고 물부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하수전문기관으로서 파종기 물부족 피해를

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와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저작권자 © 삼다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이창준 기자